

하늘에서 내려다본 황홀경

'바람의 섬' 제주 패러글라이딩 체험



아무런 동력장치 없이 오로지 바람의 힘만을 이용해 하늘을 누비는 이색 스포츠, 패러글라이딩. 위험하지 않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사실 패러글라이딩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면 이런 걱정들은 괜한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낙하산(parachute)과 행글라이딩(hang gliding)을 합쳐 만든 합성어이다. 무동력 활공 기구인 패러글라이더는 낙하산보다 높은 고도를 유지하며 멀리 날아갈 수 있고, 행글라이더와 비교하면 좀더

안전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숙지하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패러글라이딩이 가진 매력 포인트.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무게에 맞는 글라이더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활공 체험이 가능한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다. 하늘을 나는 특별한 경험을 가족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 그만큼 멋진 추억이 또 있을까.

성공적인 패러글라이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람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활공 조건이 맞다면 전국 어디서나 패러글라이딩

체험이 가능하지만, 바람 하면 역시 제주도를 빼놓을 수 없다. 더구나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름은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무척 색다른 감흥을 선사해준다. 여름의 문턱에 다다른 5월 어느 날, '바람의 섬' 제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에 도전했다.

제주에는 함덕해변 서우봉을 비롯해 다랑쉬오름, 금(악)오름, 미악산, 군산 등 약 5개 포인트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다. 이중 함덕해변과 다랑쉬오름이 가장 인기가 좋지만, 바람의 세기와 방

향 등에 따라 그날의 활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직접 포인트를 고를 순 없다. 활공장 선택은 오로지 그날의 '바람'과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보통 봄철엔 함덕해수욕장에 있는 서우봉 활공장을 많이 이용하지만 이맘때쯤이면 다랑쉬오름이 비행하기 더 좋아지죠." 패러글라이딩 전문가인 패러메니아 함영민 팀장은 이날 다랑쉬오름을 선택했다.

동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다랑쉬오름은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다만 활공장으로 이용되는 곳까지 장비를 직접 짊어지고 올라가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데 이 정도쯤이야! 20분 정도 가파른 길을 따라 활공장에 올라서니 주변 발과 오름, 멀리 성산일출봉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와우!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더 멋질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다.

잠시 주변 정경에 취해 있는 동안 이미 하늘을 날 준비를 마친 함 팀장이 몇 가지 이륙 요령을 설명해준다. "항상 저와 같은 간격으로 이동하고, 땅을 보는 게 아니라 글라이더를 보며 움직여야 합니다." 이착륙 시 주의하고 하늘을 나는 동안은 마음 편히 그저 즐기면 하면 된다는 말씀. 이거 정말 대박 체험인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늘로 날아오를 차례! "자, 뒤로. 글라이더를 보면서 천천히 앞으로. 이제 돌아서 달려요!" 아차차. 이륙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긴장을 많이 한 탓일까. "오늘 바람이 약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아까 설명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올라올 바람을 기다린다.

곧이어 귀 뒤로 살랑거리는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제 곧 옵니다!" 함 팀장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글라이더가 펄럭이며 하늘 위로 부풀어오른다. "지금이에요!" 순간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나간다. 서너 발자국 달렸을까. 갑자기 발이 땅에서 떨어지더니 어느새 몸 전체가 허공에 떠 올라 있다. "어, 어..." 무슨 말을 이을 새도 없이 지나간 찰나의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짜릿함이 온 몸을 훑고 지나간다. 창공을 날아오른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발이 땅에 닿지 않던 찰나, 생전 처음 경험하는 공중부양(?)이 놀랍고 신기하기만 하다. 이내 설렘 가득한 기분으로 차분히 처녀비행을 만끽한다. 언제 땅에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편안한 느낌이다. 지금, 내가 하늘을 날고 있기는 한 건가?

발아래 펼쳐진 풍경을 보니 분명 제주의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데... 편해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때로 무중력 상태에 놓인 듯 공중에선 아무런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땅 위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 위의 평온함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제주는 황홀

경 그 자체다.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시켜주는 건 마치 검은 점처럼 보이는 글라이더 그림자. 그림자를 따라간 곳에는 제주에 저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모습들이 가득하다. 땅 위에서만 보던 풍경을 위에서 내려다보니 같은 풍경도 왠지 낯설고 색다르게 느껴진다. 발 사이에 드문드문 자리한 무덤과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는 도로, 장난감처럼 느껴지는 차들과 집들이 모두 신기할 따름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최고로 꼽히는 풍경은 바로 다랑쉬오름 분화구. 이 분화구를 보려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이제 상승기류를 타고 위로 더 올라갈 겁니다." 잔잔한 파도처럼 얽힌 불어오던 바람이 한순간 밑에서 위로 거세게 밀어닥친다. 글라이더가 하늘 위로 두둥실 떠오르자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던 능선 너머로 분화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마침내 분화구 위로 패러글라이딩이 날아오른다. 오름 한 가운데 움푹 파여 있는 분화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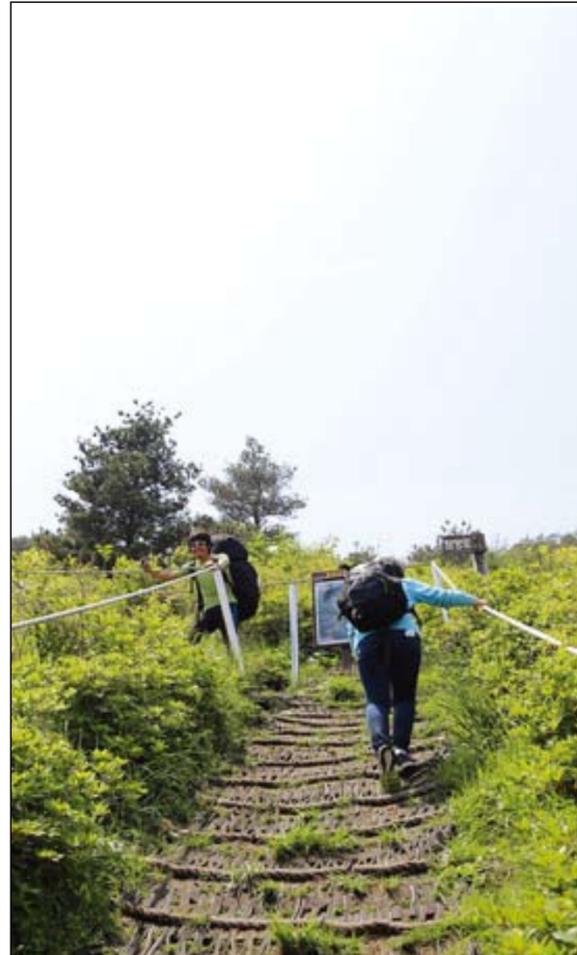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할 환상적인 광경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질 줄 모른다. 오름에 올라

서 보는 분화구가 조각조각 맞춰야 하는 단편적인 모습이라면, 하늘에서 보는 분화구는 둥근 형태가 한눈에 오롯이 잡히는 입체적인 모습이라고 할까. 대자연의 생생한 걸작과 마주하고 있자니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다.

아쉽지만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다. 약 15분에서 20분에 걸친 활공을 마친 후 서서히 바람을 타고 아래로 향한다. 착륙할 때는 발이 땅에 닿으면 진행 방향 그대로 가볍게 달리다 점점 속력을 늦추며 멈춰 서면 된다. 이륙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신경쓰면 어렵지 않게 착륙할 수 있다. 한 마리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꿈같은 시간.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뒤늦게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지금, 그 꿈이 잊히기 전에 언제 또 다시 도전해보리라 마음속 버킷리스트에 새겨 넣는다. 패러글라이딩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라면 전문가가 동승하는 2인승 체험 비행이 적합하다. 초등학교 생 이하 어린이도 체험 비행이 가능하지만 체중 확인 등을 위해 사전에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체험 비행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다랑쉬오름(왼쪽)과 함덕해변 패러글라이딩 체험



▲ 다랑쉬오름은 활공장까지 직접 준비를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

中国威海石岛凤凰湖海景房

山、海、湖共享的中国休闲地产第一品牌 / 中、日、韩自由贸易区 山东半岛蓝色经济区
购房业主推荐工作、落户、孩子入学等贴心服务

招聘营销人员: 性别、民族不限, 年龄在25到65岁。有营销经验者优先。 营销范围: 房地产、化妆品、保健品。 联系电话: 02-837-8009

6月1日起购房者若交30%首付, 并交房条件成熟的客户, 可以拿钥匙入住。其余房款可分两年或五年内分期付款。
两年内分期付款者, 五年后可根据本人的意愿, 公司可收购其房屋并退回已交的全部房款。五年到期可更名, 更名费客户自理。

首付10%-30%, 2年无利息分期付款或银行贷款
起步价(顶楼价) 3650元/ m2, 最低首付3万元
实地看房包食宿、观光、购房送往返机票
电梯房送10年物业费, 送韩国五日游

中国赤山集团韩国支社电话: 02-837-8009, 010-4481-7997, 010-5729-8877
中国电话: 13904485063
地址: 地铁7号线大林站12号出口中央市场方向前行20米